

콜론타리즘의 이입과 신여성기획

— ‘지식인여성노동자’ 등장과 ‘주의자연애’를 중심으로 —

서 정 자*

I. 들어가는 말

II. 콜론타리즘과 신여성기획

- 1) 콜론타이의 신여성기획
- 2) ‘지식인여성노동자’의 등장
- 3) ‘주의자연애’ 모티프

III. 맺음말

* 초당대 교양과 교수

국문초록

콜론타이즘은 엘렌케이사상과 함께 근대 우리 신여성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 여성해방사상이다. 엘렌케이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문학, 사회학 등 여러 면에 걸쳐 진척이 있었던데 반하여 콜론타이의 사상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밝혀진 바 없다. 우리 나라에 이입 소개되는 콜론타이즘은 『붉은 사랑』과 함께 "연애는 사사다. 매력을 강하면 서로 육체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자유"라는 성해방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신문 잡지들이 보여준 통념이었으나 이는 콜론타이 연애유희론의 일면만이 부각된 것이고 연애유희론과 함께 우리문학에 큰 영향을 미친 콜론타이의 신여성론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유학 등으로 일본에서 사회주의 사상과 더불어 콜론타이의 사상을 접한 작가들이 콜론타이의 신여성 기획에 영향을 받아 지식인여성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문학 여성주인공으로 작품에 형상화하고 연애유희론의 영향으로 주의자연애를 프로문학의 주요모티프로 등장시키는 등 콜론타이의 사상은 우리 문학에 미친 바 영향이 적지 않았다. 본고는 이기영의 장편 『고향』과 박화성의 장편 『북국의 여명』을 중심으로 '지식인 여성노동자' 등장과 '주의자 연애'를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기영과 박화성 두 작가가 콜론타이즘의 영향을 받았음을 논증해 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콜론타이의 신여성론과 연애유희론이 우리 문학에 미친 영향이 다대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의 보다 광범위한 고찰은 앞으로 남은 문제이며 동시에 이 두 작품의 예를 보더라도 이 신여성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신여성은 아니었다는 점, 즉 근대 서구사상의 이입에 의해 형성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남자의 시선이요, 남성적 세계의 인물이라는 점 역시 심도 있는 분석이 요청되는 부분이라 여겨졌다. 즉 여성노동자로 성장하는 갑숙이나 투사적 인물의 성장을 보여주는 박화성의 『북국의 여명』의 효순은 역시 콜론타이의 사상을 밑그림으로 하여 자신의 세계를 그려간 이중적 타자의 존재인 것이다.

핵심어 : 콜론타이, 신여성론, 연애유희론, 주의자 연애, 지식인여성노동자인물, 신여성기획

I. 들어가는 말

콜론타이즘이 엘렌케이의 사상과 함께 근대 우리 신여성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 여성해방사상이었음이 밝혀진 이래¹⁾ 엘렌케이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진척이 있었던데 반하여 콜론타이의 사상과 그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진척이 된 것 같지 않다. 최혜실교수가 신여성을 대상으로 근대의 풍경을 깊이 있게 파헤친 『신여성은 무엇을 꿈꾸었는가』에서 콜론타이즘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콜론타이즘의 실천자로서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허정숙의 삶을 그 구체적인 예로 언급한 정도 외에 콜론타이즘과 관련한 깊이 있는 연구나 관심은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최혜실교수가 보여준 콜론타이즘 소개는 2,30년대 신문잡지에서 소개된 연애론의 수준을 넘어 콜론타이의 신여성론을 찾아 요약 소개하는 등 콜론타이의 사상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²⁾ 우리 나라에 소개된 콜론타이즘은 『붉은 사랑』과 함께 “연애는 사사다. 매력을 감하면 서로 육체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자유”라는 연애 유희론³⁾의 일면정도로 이해하는 수준이었으나 콜론타이가 신여성론을 펼쳤다는 것을 처음 밝혀 제시한 것은 콜론타이의 사상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글이었다.

사실 콜론타이의 신여성론은 연애유희론과 함께 우리문학에 끼친 바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론타이의 신여성론은 연애론 소개에 묻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⁴⁾ 유학 등으로 일본에서 사회주의

1) 서정자, 「일제강점기 한국여류소설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한국근대여성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pp.58~60.

2) 최혜실, 『신여성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pp.139~144.

3) 연애유희론은 콜론타이의 연애론을 약칭하는 용어이다. 현민도 「푸로문학과 연애」에서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신윤선역의 콜론타이의 『연애와 신도덕』(1947. 신한사)에 이 용어가 나온다. 진정한 연애에 대응하는 연애를 연애유희라고 한다.

4) 잡지에 콜론타이 문학과 사상을 소개한 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콜론타이의 글은 『적련(붉은 사랑)』, 『연애의 길』, 『위대한 연애』의 세 소설과 『아일랜드

사상과 더불어 콜론타이의 사상을 접한 작가들은 이 콜론타이의 신여성론 등에 영향을 받아 프롤레타리아 신여성 인물을 창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채만식의 『인형의 집을 나와서』처럼 입센의 『인형의 집』의 제목을 제목에 넣고 주인공 이름도 노라라고 하여 여성인물 설정에 여성해방사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듯이 콜론타이의 신여성론도 연애유희론과 함께 프로문학의 여성인물과 그 성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

앞서 최혜실교수의 글에서도 콜론타이즘을 실천한 사람으로 허정숙을 들었지만 1931년 7월 『삼천리』도 붉은 연애의 주인공으로 허정숙을 들고 있고 송계월도 1932년 11월 『신여성』에 「조선의 콜론타이 허정숙론」(게재는 되지 못함.)을 쓰고 있는데 송계월의 기사는 읽을 수 없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앞의 『삼천리』의 기사는 연애유희론의 실천자로서 사회주의 운동가의 쉽게 이혼하고 결혼하는 사생활을 선정적인 기사로 쓰고 있다. 이광수가 『혁명가의 아내』에서 주인공 공산의 아내 방정희를 방탕 무쌍한 패륜녀로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 진영을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⁵⁾ 콜론타이즘은 연애유희설에 대한 관심에 초점이 놓인 소개가 대부분이었다.

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상태, 「계급투쟁」, 「부인문제의 사회적 기초」, 「사회와 모성」 5편 정도의 논문이었다. 이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소설 『적련』인데 이 소설은 우리말 번역으로 출판이 되지 않았는지 당시에 출판된 판본으로는 찾아지지 않는다. 입센의 『인형의 집』이 신문에 연재되었던 것에 비추어보면 그 성격에 비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꼼꼼히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신문이나 잡지에서 책 출간 광고 역시 보지 못해 우리말로 출판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신문 잡지에 글을 쓴 필자들은 일어로 된 책을 읽고 글을 쓴 듯 어느 필자는 일어 판으로 읽었다고 쓰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지광』(1928.11)에 “『신사회의 연애관』 30원, 『사회주의 부인관』 10원, 시문사(경성부 돈의동 60-3)라는 광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콜론타이의 저서 『연애와 신도덕』은 배벨의 『부인론』과 함께 일부 번역 소개가 되었던 것 같다.

5) 이광수, 『혁명가의 아내』, 우신사, 1992. 이에 대해 이기영이 반론으로 쓴 「혁명가의 안해와 이광수」, 『신계단』, 1933.4 「변절자의 안해」, 『신계단』, 1933.5는 유명하다.

그러나 최혜실교수는 허정숙이 이러한 자유분방한 연애관을 가졌으면서도 ‘연애를 사사’로 본 콜론타이의 연애관을 잘 소화하고 지켰다고 보았다. 자신의 이념, 사업의 동지로서 연인을 택하였으며 따라서 연애의 과정이 자기 발전의 과정과 일치하며 부수적으로 상대남성이 활동 집단의 보호자가 되는 혜택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⁶⁾ 연애유희론의 일면에만 초점을 맞춘 편협한 영향만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성적으로 반역해야 한다는 콜론타이의 신여성론의 영향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 지금까지의 콜론타이즘론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인데 이 콜론타이즘이 우리 문학에 미친 신여성 인물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성의식에 미친 영향에 그친 것은 10, 20년대 소설을 대상으로 논의한 탓일 것이다.

콜론타이의 소설 『적련(붉은 연애)』이 알려지면서 콜론타이의 사상은 바로 이 붉은 연애의 연애관으로 굳어지게 된 것 같다. 다음은 『삼천리』(1929. 9)의 기자가 근우회의 중앙위원장이자 여성평론가인 정철성을 만나 『적련』에 나타난 콜론타이의 성도덕에 대한 비판을 들은 내용. 기자는 “세계의 평론계와 사상계를 그렇게도 몹시 흔들어놓던 러시아 콜론타이의 소설 『적련』기타 여러 가지 양성관계의 신도덕 문제에 대하여 조선의 여류사상가들이 너무도 안타깝게 침묵을 지키고 있기에 오늘은 ‘분개하여’ 그 비판을 들으러 왔다”고 한다. 그러나 비판은 기자가 하고 정철성은 『적련』의 내용을 ‘비판하지 않고’ 긍정하는 답변을 한다. 기자와 정의 문답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문-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사회적 일이 더 중요한가/답-그렇다. ②문-연애할 시간이 없으니 생리적 충동을 구하는 일이 옳은가/답-현실을 잘 본 말이다. ③문-그렇다면 정조관념은 아주 무시하는 것 아닌가/답-정조를 너무 과중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④문-연애가 사사다 개인의 일인즉 어쨌든 지 좋다는 것인가/답-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의 연애생활이 계급 투쟁력

6) 최혜실, 앞의 책, p.143.

을 미약하게 하고 사회적 의무를 등한히 하므로 감시를 해야한다. ⑤문-결혼 생활 중 연애가 사라질 때는 헤어져야하는가/답-헤어져야 한다. ⑥문-이혼을 하려는데 왓시릿사 같이 잉태했다면?/답-낳아야한다. 그래서 육아원이 있는 것이다. ⑦문-인형의 집 노라와 『적련』의 왓시릿사의 해방이 어떻게 다른가. / 답-인형의 집 노라는 가두에서 굶어죽고 얼어죽는 해방이지만 왓시릿사는 모든 것에 철저히 자유스럽게 되지 않았습니까?」

콜론타이의 성도덕을 한치의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철성의 전위적 대응이다. 정철성의 이러한 개방적으로 보이는 성 의식은 붉은 연애를 무차별하게 수용하는 무분별한자세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답변을 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확신을 느끼게 한다. 말하자면 이 인터뷰는 콜론타이가 주장한 연애유희론의 본질은 빠지고 그 결과만 논의한 형국인 것이다. 그러나 김억의 「연애의 길을 읽고 (콜론타이)」(1932.2 『삼천리』)의 ‘게니아의 연애⁸⁾가 소개되자 콜론타이즘에 대한 이해는 자유분방한 연애로 고정화되었다. 김명순 김일엽 나혜석의 분방한 자유행적과 1926년 김우진 윤심덕의 정사사건, 그리고 박인덕⁹⁾ 등 유명여성인사들의 이혼사건이 줄을 이으면서 형성된 자유연애에 대한 극도의 비판적 분위기 속에 콜론타이의 자유분방한 연애관은 매우 부정적으로 소개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엘렌케이 사상의 신도덕, 즉 사랑이 없는 결혼은 매음이라는 논리는 콜론타이 사상 역시 마찬가지로었지만 엘렌케이사상은 모성보호론으로 말미암아 오래 동안 사회적 지지를 받았던데 비해서 콜론타이의 연애관은 시종 부정적인 수용의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 잡지의 비판적인

7) 정철성, 「적련 비판—꼬론타이의 성도덕에 대하여, 『삼천리』 1929.9.

8) 게니아의 연애란 콜론타이의 소설 『연애의 길』에 나오는 것으로 어머니가 사랑하는 남자와 관계하던가 자기가 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연애이다. 유철수, 「성에 해방론 비판, 『동광』 1931.8, p.91.

9) 양주삼의 8인, 「박인덕여사 이혼에 대한 사회적 비판, 『신동아』 1931.12.

몽통구리, 「박인덕여사 가정에서 사회로—조선이 낳은 현대적 노라—, 『신동아』, 1932.1.

수용양상에도 불구하고 콜론타리즘은 우리문학과 여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콜론타리즘은 우리 문학에서 첫째 지식여성이 노동자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여성인물을 등장하게 했다. 둘째 ‘주의자연애’ 모티프로 나타난다. 이 지식여성노동자 주인공의 등장과 주의자 연애 모티프는 우리 프로문학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요요소이며 이는 콜론타이 사상 중 연애론 만이 아니라 신여성론을 참고할 때 그 영향관계가 밝혀지는 부분이다. 지식인 여성노동자 주인공의 등장은 콜론타이의 신여성론 즉 신여성기획과 관련이 있으며 ‘주의자 연애’는 일이 연애보다 우선한다는 연애유희론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콜론타이의 신여성론 등 그의 사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신문 잡지는 콜론타이의 사상을 소개하는데 연애관 결혼관을 소개하는데 치우쳐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대와 개인의 자각이라는 시대적 사회적 이유로 연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탓이기도 하지만, 한편 연애관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여성이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억압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여성의 자각과 해방을 기치로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 모성을 강조하는 잡지 『신여성』의 경우를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¹⁰⁾

10) 이돈화는 『신여성』 제2호의 권두언 「세상에 나온 목적」에서 “여러분 속지 마시오”라고 전제한 다음 “과거의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의 태반은 허위요, 處變(때에 따라 변한다는 뜻인 듯)이며 수단이며, 진실된 일이 있으니 그것은 곧 각자의 개성”이라고 하였다. 이 자기의 본래성을 찾은 여성이 신여성이라는 혁신적인 글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신여성』 4호에 김윤경이 쓴 글을 보면 「여자의 세력이 얼마나 큰 것을 자각하라」는 제목으로(잡지서두에 실린 논설로서 『신여성』의 社説가 반영된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에 나가는 각 여학교졸업생에게 첫 번째 당부로 ‘부인운동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성적도덕문제, 여자 직업 또는 노동문제, 여자참정권문제, 모성보호문제, 여자교육문제 등 부인문제가 많은 중에 인형의 家나 엘렌케이의 자유이혼론만 보고 모성보호론같은 것을 망각하는 때문에 감정의 변화대로 자유이혼이 가한 줄 주장하는 이가 있으나 이는 자기 스스로 인격자멸을 기도하는 창기, 음부를 化成하여 사회로 하여금 원시야

본고는 이기영의 『고향』과 박화성의 『북국의 여명』을 중심으로 '노동자 여성주인공'과 '주의자 연애'가 콜론타이의 신여성기획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우선 살펴보고 콜론타이즘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성 의식을 적나라하게 증언함으로써 연애유희론과 정면대결 하는 박화성의 주의자연애가 대담한 '누이'의 탄생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려 한다. 동시에 '주의자연애'와 '지식인여성노동자'의 등장으로 나타난 대담한 신여성 '누이'의 탄생이 우리 근대에 놓이는 의미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II. 콜론타이즘과 신여성기획

1) 콜론타이의 신여성기획

콜론타이의 『연애와 신도덕』¹¹⁾을 보면 첫 장이 신여성의 장이다. 노동자 여성을 대표적 신여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콜론타이의 신여성론은 콜론타이즘을 비판적으로 수용, 반응하면서 신여성기획에 참여한 신문 잡지와 함께 우리 문학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을 확인하게 하는 장이다. 이 책에는 먼저 '신여성(새로운 부인)¹²⁾'에 대한 장이 있고, '연애와 신도덕', 그리고 '성 관계와 계급투쟁'의 장이 있다. 우선 '신여성' 장을 보자. 콜론타이

만의 시대로 환원케 하는 것이라고 부인운동에 대하여 대단히 강도 높은 경계를 하고 있다.

- 11) 콜론타이의 저서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 林房雄역 『연애와 신도덕』(일어판)은 1928년 세계사에서 출간되어 있고 이 책 내용의 일부가 1947년 신운선역으로 신학사에서 『연애와 신도덕』으로 번역 출간되어 있다. 콜론타이 사상의 이해를 돕는 것으로 영어판 *New Woman*을 읽고 요약 소개한 최혜실교수의 위의 글이 있는데 본고는 신윤선 번역의 『연애와 신도덕』을 주로 참고하였다.
- 12) 신여성을 새로운 부인이라고 번역한 것은 일본어판이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 본고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신여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의 ‘신여성’론은 세계문학에 나타난 신여성론이며 미래의 신여성론이다. 콜론타이의 문학적 명성을 있게 한 것이 『적련』 등 소설과 함께 이 ‘신여성’ 장이 아닐까 싶게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신여성 론을 펼치고 있다. 먼저 그는 조르즈 상드와 같은 신여성이 여성적 자아와 인간적 자아를 주장하고 있었던 시대에 플로벨이 『보바리부인』을 쓰고 있는 것, 톨스토이가 가혹한 현실이 수많은 여성의 손목을 쇠사슬로 매놓은 시대에 『안나 카레니나』와 같은 소설을 쓴 것에 대하여 비판한다. “속고 버림받아 고민하는 존재, 복수심이 강한 여자, 아름답고 매력적인 야수, 비겁하고 우둔한 동물, 순진 무구한 가련한 소녀” 이런 여성이나 그리는 작가와 시인은 의식의 맹목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탄을 마지않는다. 콜론타이는 제5타입의 히로인, 독신여성이야말로 신여성이라 이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계의 명작 희곡과 소설의 주인공 중 독립적이고 자각된 이 신여성의 모습을 감성적인 필치로 제시하여 특히 작가들에게 감동적 호소의 효과를 주었을 것 같다. 콜론타이가 신여성이라고 명명한 독신여성(부인)¹³⁾은 우선

13) 맨 앞에 걸어가는 것은 부인노동자 마틸데(하우프트만의 소설 마틸데Mathilde의 히로인)이다. 다음에는 맨발의 타치야나(막심 고리키의 「표박자의 각서」의 히로인),

“나는 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내자신의 힘으로 창조한 것이다”라고 죄인이면서도 의기양양하게 서있는 여우(가수) 막다(주더만의 「고향」의 히로인),

일을 사랑하여 결혼을 거부하는 여의사 러 코로제르(콜레트 이블 「과학의 여왕」의 히로인),

그 옆을 뛰어가는 정열적인 사회주의자 테레사(슈넛스텔 「광야의 길」의 히로인),

연애에서 인생의 내용도 목표도 찾지 않는 여성작가이자 편집자 아그네스 페트로브나(스체브키나 쿠페르니크 「그들 속의 한 사람」의 히로인),

사려 깊은 자유인 베라 니코디모브나(포다벵코 「안개 속」의 히로인),

폐결핵환자 메리(뤼니첵코 「생활의 저울 위에서」, 그 곁에 뒹아빠진 구두를 끌면서 일자리를 찾아 뛰어가는 여전사 타리아,

그 곁의 안네티의 반항적인 조소가 들린다...안나, 미라, 리디아, 내리, 이들에게 연애란 생활의 심포니 속에 있어서 잠깐 삼입된 멜로디에 불과하다.

루네, 마야, 그는 남편의 그림자 남편의 반향이 되려는 유전적 경향과 부단히

감정을 이겨내며 의지가 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여자다. 연애할 때도 독점을 원치 않으며 자신의 감정과 자유를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대신 타인의 그것도 인정한다. 동시에 남자가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거나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부정을 저지르는 것조차 용서할 수 있으나 아내의 정신적 자아, 아내의 혼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조화롭고 완전한 연애를 구하는 모든 순진한 여자들을 기만하므로 여자들은 연애의 끈을 용감히 절단하고 그들의 이상을 찾기 위하여 전진한다는 것이다¹⁴⁾.

경제적 독립 요구를 갖고, 국가, 가정 사회의 온갖 노예화에 항거하고, 여성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는 이들 독신 여성의 뒤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따르며 그들은 대군을 이루어 우리의 앞을 걸어간다고 콜론타이는 특유의 선동적 문장으로 신여성의 탄생을 역설한다. 그러나 독신여성이 곧 콜론타이가 제시하는 미래의 신여성이 아니다. 그는 독신여성이자 노동자여성이라야 대표적 신여성이라고 한다. 이 독신여성이자 노동자 여성이 곧 '신여성'의 대표적 타입이라는 콜론타이의 신여성기획은 우리 문학에 독신 노동자여성이 등장하도록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그는 독신이자 노동자인 신여성이란 대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아들이며 이 신 여성은 노임에 고용된 여성 노동력의 증대에 의해서만 비로소 하나

싸운다.

우타, 그는 생애를 통하여 정신의 냉정함과 자아의 존중함을 견지한다.

타아니아, 결혼을 했으나 남편과 사이좋은 친구로서 서로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는다.

입센의 에리다, 의식적으로 정열을 빠져나가는 안나 세나노브나,

해방된 영국여학생 파니,

각성한 반역적이고 탐구적인 안나 마르,

로망 롤랑의 세실, 부인참정권 운동자 줄리아 프랑스, 유태 색시 마리 안탄...

(콜론타이가 예시한 작가와 주인공이름은 세계문예대사전에서 찾아보았으나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어 식 표기를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후일 이들 작품을 연구 소개하는 전공자의 글을 기대한다.)

14) A. 콜론타이 신윤선 역, 연애와 신도덕, 신한사, 1947, p.45.

의 타입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생산조건이 변해서 노동인구가 급증하면 가정에 있는 여성도 노동자로 나섬으로써 경제적 독립을 획득하게 되는데¹⁵⁾ 새로운 경제적 독립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시덤불 길로 나온 여성은 아버지나 혹은 남편의 원조 없이 독립하게 되며 종래의 도덕과 부덕 즉 수동성, 헌신 온순, 우아는 무익 유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동시에 가혹한 현실은 독립한 여성에게 능동성, 저항력, 과단, 대담, 즉 종래 남자의 특징이고 특권이라고 보아온 적극성을 요구하게 된다. 현재의 자본주의 현실은 온갖 양식으로 과거의 부인에 비하여 극히 남자에 가까운 타입을 창조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구여성에게는 아무런 자리도 없다. 따라서 여러 사회계층의 여성 사이에 일종의 자연도태가 생긴다. 내적으로 수동적인 자는 가정으로 부엌으로 달아나고 더러는 매음의 타류로 던져진다. 즉 형식적인 결혼을 하거나 거리로 나서거나 한다.

그는 노동하는 여성이야말로 온갖 사회계층의 대표자인 진보적 여성 군이라고 본다. 이 신여성으로의 정신개조는 '사회의 밑창에서' 수행된다. 노동여성에게 있어 명료한 계급적 이데올로기는 생존투쟁을 위한 하나의 무기이다. 이러한 신여성은 새로운 도덕을 지닌다. 위대한 연애를 기초로 하는 결혼은 정신과 육체의 화합이며 미래의 인류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이상이다. 그러나 이 위대한 연애는 극히 희귀한 운명의 선물로서 다만 소수의 행복자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한다. 위대한 연애가 없을 때에는 그것을 연애유희로 대용한다. 위대한 사랑이 전 인류의 재산이 되려면 정신을 고결하게 하는 연애 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연애유희도 역시 인간의 마음에 연애능력의 집적을 가능케 하는 학교라는 것이다.¹⁶⁾ 신여성에게 허락된 이 신

15) 최혜실, 「서구와 일본 페미니즘 이론과의 관계」, 『신여성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p.142.

16) 연애유희론에 의한 폐단이 무수히 제시된다. 이는 어디까지든지 혁명직후 소

도덕은 계급투쟁기의 비상 책으로서 가정이나 연애보다 일이 중요하므로 생리적 충동에 따라 연애를 대응하는 것이 용인되며 개인의 연애생활은 계급투쟁력을 약하게 하므로 ‘감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¹⁷⁾

드물게도 콜론타이의 연애관을 ‘번역하여’ 싣고 있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보면¹⁸⁾남자나 여자를 물론하고 각자 직업을 소유하는 장래에는 전문 직업여성도 연애라는 것을 생활의 제일 위(位)에 두지 않는다. …중략…자기의 직책을 항상(남편이나 연인보다도) 제일 위에 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적련』의 블라디미르도 이렇게 말한다. “운동이 우선 이고 그 다음이 사랑이요! 그렇게 생각지 않소 바샤(왓시릿사)?”¹⁹⁾ 이러한 연애유희론의 논리가 영향이 되어 나타난 한 양상이 ‘주의자 연애’, 즉 동지애다. 사랑보다 일을 우위에 놓는 연애이다. 일종의 신여성 기획이라 할 이러한 콜론타이의 사상은 당대 공산주의자들에게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련의 과도적 현상이었다는 것. 프롤레타리아 성애론을 논하는 거의 모든 논객은 이 연애유희론을 비판하고 있다. “빨간연애의 여주인공 왓시릿사와 같이 큰 일을 제일 의로 하는 것은 좋다.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도 좋다 그러나 나는 삼대의 연애의 게니아와 같이 자기어미가 사랑하는 남자와 관계하고 또는 자기가 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도 태연한 종류의 연애에 찬성할 수 없다. 게니아는 당의 일을 잘 분다니 잘 분다고 하자, 그러나 그의 성적관계는 과도기적 일 현상에 불과하다. 그 과도기적 현상을 그대로 승인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객관적 정세가 그러하다고 주관적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다. 게니아식의 활나적 연애를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것은 코론타이의 잘못이고 그런 생각을 퍼쳤으면 큰 해독을 끼친 것이다. 게니아와 같이 성적욕구를 몰 마시듯 하지 않아도 생리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고 도리어 당의 일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철수, 「성애해방론 비판」, 『동광』 1931.8. 진상주, 「푸로레타리아 연애의 고조—연애에 대한 계급성/동경에서」, 『삼천리』 1931.7. 「코론타이주 의란 어떤 것인가?」, 『삼천리』, 1931.11 등 다수.

17) 정철성, 「적련비판—코론타이의 성도덕에 대하여」, 앞의 글 참조.

18) K.W.P역, 「콜론타이사 장래사회의 연애관」, 『동아일보』 1929.12.1 콜론타이의 사상을 번역하여 실은 드문 경우이다. 대부분은 필자가 독후감 형식으로 비판적으로 썼다.

19) A.콜론타이, 김제현 옮김, 『붉은 사랑』, 도서출판 공동체, 1988, p.23.

있었으나 러시아에서나 우리 문학에 무시 못할 영향을 끼쳤다. 이기영의 『고향』이나 한설야의 『황혼』에서 지식인 여성이 노동자로 취업, 등장한다든지 주의자연애를 보여준다는지 가 그 예이고, 박화성의 『북국의 여명』 등 그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철저한 주의자연애와 대담한 누이의 탄생이 콜론타이의 신여성기획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2) '지식인여성노동자'의 등장

이기영의 장편 『고향』의 여주인공 안갑숙은 부잣집 딸이자 여학교를 졸업한 인텔리이면서도 제사공장의 여공으로 취직을 한다. 갑숙은 인순이가 고향의 새로 생긴 제사공장에 취직했을 때부터 관심을 보이며 노동자로 취직하기를 원하는데 한설야의 『황혼』의 주인공 여순도 같은 경우로서 가난하고 도와줄 가족이 없기는 하나 여학교 출신 신여성이 여공으로 취업한다는 경우는 프로문학에서 제시하는 신여성기획의 하나로 특이한 인물 설정이다. 『고향』에서도 여공이란 '보통학교도 채 나오지 못한' 학력이라고 나오듯이 갑숙의 여공으로의 취업은 작가의 신여성기획이 반영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체면도 무엇도 돌보지 않는 아버지 안승학이 경호의 출생비밀을 손에 쥐고 경호를 데려다 기른 권상철로부터 한밑천 뜯어내려는 기도가 딸의 탈선으로 불가능해지자 본처 순경의 배를 칼로 찌르고 갑숙이도 해치러들어 갑숙이 집을 나와 옥희라는 이름으로 위장 취업을 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갑숙의 노동자로서의 변신은 갑작스럽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고향』의 갑숙이 공장에 취업하게 되리라는 것은 미약하게나마 작품의 곳곳에 암시되어 있다. 또 희준이 인순의 여공 취업을 두고 "원체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나 노동의 신성성에 대하여 되풀이 강조하고 있는 점등은 여공을 통해 작가가 걸고 있는 기대를 느끼게 한다. 갑숙은 공장 노동자가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까지 말한다.

“그럼 당신은 이 공장에 오래도록 있을 터인가요?”

“네! 한동안 기술을 다 배우기까지는…”

“혹시 공장보다 나은 곳이 있어도요……?”

“여자의 직업으로 공장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갑숙이는 은근히 고소를 머금으며 말을 이어서,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가고 싶지 않아요…(하략)”²⁰⁾ (밀줄 인용자)

이 장면은 자신의 친아버지가 머슴 꼭참지라는 사실을 알고 난 경호가 길러준 권상철의 집을 나와 역시 제사공장의 감독으로 취직해 역시 옥희라는 이름으로 위장 취업한 갑숙이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다. 이 대화에서 갑숙이 보이는 태도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신호를 넘어 어떤 사명의식을 느끼게 한다. 후일 이 사명의식은 갑숙이로 하여금 멀리하던 경호를 “제일 가까운 동무”로 받아들이게끔 한다.²¹⁾ 경호는 갑숙이를 사랑하는 데 갑숙은 비록 몸은 빼앗겼으나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희준을 다시 만나면서 경호를 멀리해왔던 것이다. 희준을 사랑하는 갑숙이 경호에게 처녀를 빼앗겼다는 대목은 전후 맥락으로 보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나 이 역시 콜론타이의 신여성기회를 참고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콜론타이의 연애유희론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호와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로 맺어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나도 아버지의 유전을 받아서 음란한 여자로 태어났나? 왜 그 때 순진한 우정으로 못 사귀었던가….’²²⁾

20) 이기영, 『고향』, 한국소설문학대계, 동아출판사, 1995, p.442. 같은 시기 쓰여진 강경애의 『인간문제』에서 첫째가 부두 노동자가 된단다가 선비, 간난이가 여공으로 취업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갑숙이의 위장취업이 분명해진다.

21) 이 대목에서 작가는 갑숙이 독신생활을 못하고 결혼하는 것은 경호와 혼전관계가 있었던 때문임을 굳이 변명처럼 설명한다. 콜론타이의 신여성 기회에서 독신이자 노동자 여성을 대표적 신여성으로 본 것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다. 밀줄 필자.

22) 이기영, 위의 책, p.120.

그러나 갑숙은 돌연히 경호와 결혼하기로 결심하는데 이런 갑숙의 행동은 '주의자 연애'라고 하는 주의자의 특이한 연애의식을 감안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점이다. 갑숙은 경호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경호의 아버지가 머슴 껍찜지임이 판명되자 머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경호와 달리 오히려 경호를 동정하며 이 머슴 아버지는 "시대적 양심에 조금도 가책 당할 것이 없지 않느냐"고 경호를 깨우친다. 갑숙은 머슴 껍찜지를 아버지로 잘 모시겠다고 다짐한다. 확실한 노동자 가족의 탄생이다. 이런 갑숙·경호의 결혼은 희준과의 대화에서 그 성격이 분명해지는데 경호와의 결혼은 사랑해서가 아니라 '경호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즉 사랑보다 일을 우위에 놓은 결혼의 형태임을 갑숙은 분명히 밝힌다. 경호와 갑숙의 관계는 바로 콜론타이의 '연애보다 일이 우선인' 연애유희론의 영향이자 '주의자 연애'의 한 형태인 것이다.²³⁾ 우리는 갑숙의 이러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갑숙의 희준에 대한 사랑이 작가에 의해 계속 '동지애'로 묘사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역시 콜론타이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주의자 연애인 것이다.

갑숙의 지식인 여성노동자로서의 활동을 잠시 보자. 갑숙의 활동은 파업과 소작쟁의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난다. 감독에게 불순한 언어를 보였다는 죄목으로 파면 당한 동료를 복직시키기 위한 동맹파업을 성공시킨 갑숙은 희준을 중심으로 한 소작쟁의의 지원에 나선다. 수재로 농사를 망쳤으니 소작료를 탕감해 달라는 소작인들의 요구에 지주인 민판서의 잘해

23) 河文湖, 「코론타이 여사의 사상과 문학」, 『신가정』 1934.12, p.116.

"콜론타이는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개인의 감정을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연애보다 일이 중요하다—그러나 그러한 것인가 하고 보면 일처 다부, 일부 다처적 폴리가미적 사상의 시인은 우리들의 용인하기 어려운 것이며 일찍이 소비에트연방의 현실도 또 그것을 훌륭하게 증거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원만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활동에 나아가는 남녀가 '동지애'의 결핍의 이유로 때때 그의 대상을 바꾸는 것을 시인하여 가려는 콜론타이여사의 사상에 대하여는 소련에서도 많은 비판을 내렸다." 이렇게 콜론타이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으나 이 문맥에서 콜론타이즘의 일면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주라는 허락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승학이 나쁜 전례가 된다고 버티므로 작인들이 추수를 미루며 쟁의를 하는데 양식이 없어 실패할 지경에 빠지자 갑숙은 경호를 통해 희준을 만나 활동자금을 전한다.

박훈의 집에서 함께 만난 외에 옥희(갑숙)와 희준이 정면으로 만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인데 아버지의 죄를 자신이 대신 사죄하겠다는 갑숙과의 대화 중 희준이 갑숙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고백을 듣고 갑숙은 그전처럼 무 의식한 여자라면...(밑줄 인용자) 정을 태우게 하는 사내를 저주하였을 터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등 갑숙의 내면이 드러난다. 의식 있는 여자로 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지 않으나 갑숙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의식’이다. 이 때 이를 수 없는 사랑을 괴로워하면서 앞의 ‘동지애’가 설명된다. 희준은 이렇게 말한다.

“아까도 잠깐 말한 바와 같이 우정(동무—연재본)의 사랑이 제일 큰 줄로 난 압니다. 다른 사랑은 이 우애(동지—연재본)적 사랑에서 모두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만일 두 가지의 사랑을 동시에 결합 수가 없다면 우리는 우정(동지—연재본)의 사랑으로써 만족할 수밖에 없겠지요. 설사 다른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땀땀이 그 방면은 희생해야 할 줄 압니다.”²⁴⁾

두 사람의 안타까운 열정은 동지애, 정신적 사랑을 다짐함으로써 탈선을 하지 않고 무마가 된다. 그리고 갑숙이 안승학을 궁지에 넣을 수 있는 지혜까지 알려주어 쟁의는 성공하게 된다. 쟁의에 성공한 희준이 갑숙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 후로 며칠동안 사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남녀간의 애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모든 형태의 사랑, 애정이라는 것이 근본은 극단의 개인적인 것이면서 실상은 사회적인 물건이요, 극단의 감정적인

24) 이기영, 위의 책, p.583.

물건인 것 같으나 사실은 이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그런 까닭으로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사회적인 그 처지의 기준 위에서 성립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동무를 사랑했었다던 지, 혹은 앞으로 하겠다든지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처지에 있어서 또는 사회적으로 보아도 아무 부자연한 것이 없겠지요. 같은 부류의 일을 위해서 손목을 마주 잡고 나가는 동지로서 아무런 불순한 점이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성간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과 개인의 결합만이 그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육체적 결합을 초월하고서 결합되는 사랑! 동지적 사랑이라 할까? 이런 사랑이야말로 육체적 결합을 전제로 하고 출발하는 연애라는 것보다 더 크고 힘있고 영구적인 사랑인줄로 나는 생각합니다.²⁵⁾

갑숙과 희준의 관계의 변화는 어떤 갈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희준의 발화로 처리되고 있어서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²⁶⁾ 콜론타이의 연애관이 드러나는 대목으로서 소위 붉은 연애에 해당하는 성적 신 도덕보다 주의자 연애 동지애는 숭고하리 만치 진지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기영의 『고향』에는 갑숙이 경호와 혼전 관계를 갖는 정도 외에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다. 희준이 여러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정도라고 할까. 콜론타이 연애론의 요란한 소개와 비판에 비교되는 점이다. 콜론타이의 신여성 기획은 이기영의 『고향』에서 여성주인공 갑숙을 통해 콜론타이적 신여성과 신도덕을 형상화하게 하였으나 지식인 여성으로서 노동자로 입신하여 농민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머슴 광첩지를 아버지로 한 경호와 결혼하기로 함으로써 확실한 노동자가족을 낳는 데에 역점이 주어졌다. 연애감정은 동지애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신문 잡지에서 비판하는 성의식을 보이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말하자면 이기영은 신여성의 형상화 성공여부를 떠나서 콜론타이의 신여성론과 연애유희론의 본질을 잘 이해하여 반영한 작

25) 이기영, 위의 책, p.620.

26) 이선옥, 「이기영소설의 여성 의식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5. p.99.

가라 하겠다.

3) '주의자연애' 모티프

'주의자연애' 모티프를 소설의 주 모티프로 삼은 작가는 박화성이다.²⁷⁾ 문제작 「하수도 공사」에서 동권과 용희가 사랑하는 사이이면서도 '일'이 중요하여 기약 없이 헤어진다던가 「비탈」에서 주희와 정찬이 협조하여 노동쟁의를 성공시키면서 애인관계인 정찬과 수옥의 사이보다도 정찬과 주의자인 주희의 사이가 가까워진다던가 하는 대목이나 「중국어」의 국범이 가 돈을 구했으면서도 팔려간 애인 금례를 뒤쫓아 구하러 가지 않는 것도 '주의자 연애'의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1935년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된 장편 『북국의 여명』은 이 주의자 연애 모티프의 전형을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본 갑숙이처럼 지식인 여성 노동자가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는 않으나 철저히 '주의자연애'를 실천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이 박화성의 『북국의 여명』이다.

“선각자이요, 진보적인 남녀동무들의 성생활의 일면과 사생활의 일면”을 그렸다는 작가의 말²⁸⁾과 같이 콜론타리즘의 영향이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전위적 성 의식에 대한 증언이 박화성의 『북국의 여명』에는 등장한다. 『북국의 여명』은 프롤레타리아 성장소설로서 박화성은 이 소설에서 콜론타리즘의 연애유희론과 정면대결을 펼쳐 보이는 형국이다. 콜론타

27) 김말봉도 그의 데뷔작 「망명녀」에서 주의자연애를 그리고 있다. 주인공의 S인 니인 윤숙이 명월관 기생으로 전락한 동생 산호주(최순애)를 몸 값 삼 백원을 치르고 구해내는데 구원은 그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자인 윤숙언니의 애인 윤의 지도로 사회운동에 동경을 갖게 되면서 야 술도 아편도 끊고 삶에 의욕을 느끼게 된다. 윤과 순애는 가까워지고 윤숙은 순애를 위해 윤과 순애를 결혼으로 맺어주려 한다. '주의자연애'의 좋은 예이다. 기생이라는 사회의 밑바닥의 삶을 체험한 순애의 전위성을 인정하고 사랑보다 일을 위해 쉽게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28) 「박화성, 진보층의 이상과 고민을」, 『삼천리』 1935.11, p.74. 서정자편 박화성 문학전집 제18권, p.234.

이즘의 영향을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우선 작가가 진보적인 남녀동무들의 성생활의 일면을 그렸다는 대목을 보자. 먼저 주인공 효순이 약혼자 최진과 나누는 대화이다.

“하기는 내가 최선생과 한 방에서 밤을 지냈다는 조건만으로 허혼 했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현명한 태도는 아니었어요. 일 학기부터 전선에 나서서 실천운동을 하는 동무들과 좀 사귀어 보니깐 아주 그들은 정조문제에서 여간 해방된 게 아니던데요. 그리고 성 문제를 초월한 것처럼도 보이고 이성이란 별 다른 게 아니라는 듯이 마구 남녀동지가 한방에서 뒹구는데 나는 보기가 좀 딱했지만 그들은 뭐 아주 예사로 여겨요. 그러구도 일들은 척척 잘들 해나가요. 그걸 보니까 나는 아주 그들에게 비해서 봉건적이고 인습적이고 관념적이예요.”

(중략)

“그거 보세요. 일을 하려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효순씨에게는 그들의 행동이 펴 방종하다고 생각되었을 겁니다 마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백퍼센트의 양해를 주어도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학하던 그때라든지 그 전에 남녀유학생 수가 적을 때에는 뭐 남녀학생의 품기라는 게 그 이상 문란했거든요.”

(중략)

“글쎄 십 칠 팔세 중학생들이 전문학생인 여자들과 공공히 부부생활하고 지낸 일이 없나, 좋아하는 남녀끼리 부동해서 온천에를 댕긴다, 어디를 간다 해 가지구 마구 터놓고 부부처럼 지낸 일이 없나, 거 참 듣기에도 무시무시하리만큼 대담무쌍한 연애행동들을 취했었지요. 그러니까 순전히 연애중심의 애욕 갈등에서 그런 불건전한 생활들을 하던 그들에게 비한다면 일정한 주의와 목표아래서 투쟁을 위하여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그 동무들이야말로 과연 진실의 이해를 드러도 좋을 겁니다.”²⁹⁾

이 문맥대로라면 김동인의 「김연실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증언³⁰⁾이자 진보적 학생들의 진보적 성생활의 충격적 내용을

29) 박화성, 『북국의 여명』, 서정자 편, 『박화성문학전집』 제2권, 푸른사상사, 2004, pp.345~346.

인데 최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정한 주의와 목표 아래서 투쟁을 위하여’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그 동무들에게 진실로 이해를 하라고 한다. 한편 오순정의 눈을 통해 보여주는 역시 진보적 유학생의 생활도 나온다. 남편 김철수를 병으로 잃은 오순정은 효순과 조카사위 백상현과 함께 동경으로 온다. 일찍 홀로된 것을 동정한 죽은 옥숙아버지의 배려로 유학을 온 것이다. 이끼부꾸로 근방에 집을 한 채 얻어 상현과 남녀대학생 몇이 함께 살게되었는데 순정은 뜻밖의 장면을 목격한다. 순정은 효순을 찾아와 그 통에 휩싸선 못살겠는데 어떡하면 좋겠느냐고 호소한다.

“글쎄 우리 셋이 자고 있지 않았수? 그런데 나하구 같이 있던 여학생의 동무가 자다가 일어난단 말야. 나는 그때 잠이 깰었어요. 아 그러더니 새이 장지문을 바시시 열구서는 남자들 자는 방으루 가만히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저런 그래서?”

하고 효순은 길 가운데 우뚝 서면서 물었다.

“글쎄 그 방에 갔으면 장지문을 닫아야할 게 아니우? 문을 열어놓은채로 가길래 내가 가만히 고개를 돌려보았지요. 전등은 켜지만 늦게야 뜬 달빛이 비쳐서 창이 흰하니까 그 방에서 하는 모양이 아주 잘 봐요.”

(중략)

“그 여자가 방으루 들어가서는 맨 끝에 자는 남학생의 이불을 살그머니 떠들구 들어가겠나요. 자 어서 걸어가시며 얘기해요. 그러더니만 남자도 켜 모양인지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나구 그러길래 그만 난 이쪽으루 돌아놔서 눈을 딱 감어버렸지.”

(중략)

“그러더니만 남자들이 여자들을 불러 가는데 그 때두 전등은 켜놓지 않았어요. 그리구서는 다섯이 뭘 하는지 숙덕숙덕하는데 뭐 기침소리하나 나지않구 숙덕숙덕소리두 귀를 기울여야 들리지 잘 안들려요. 난 아마 잠이 들었던

-
- 30) 박화성의 증언을 그대로 믿어야 할는지 의문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박화성이 유학한 1927년 이후의 유학생과 10,20년대 초의 유학생과는 시기적으로 몇 년의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화성 유학 당시의 풍속을 정면으로 ‘폭로’하고 있는 증언의 강도로 볼 때 이는 사실로 인정해야 할 듯도 하다.

게야. 아침에 일어나보니깐 여전히 곤하게 자구 있겠지.”³¹⁾

『북국의 여명』은 한 여성이 프롤레타리아 투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자세 히 보여주는 우리문학사에서 드문 소설인데 그 중에도 진보적 대학생들의 성생활의 장면은 충격적일 만큼 리얼하다. 이때 순정의 호소에 답변하는 주인공 효순의 답변이 이 대목의 백미다. 물론 앞서 최진과의 대화에서 이런 운동권의 개방적 성도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탓이겠지만 효순이 순정에게 하는 말과 태도는 차분하면서도 전위적이다. 서술자는 말하는 효순의 안경 속 눈은 “영리하고 총명하게 보였다”고 쓰고있다.

“지금은 침이니깐 그러지 인제 차차 나레루하면 순정도 그들과 합해질게 고 그 여학생들이란 나도 모르는 이들이겠지만 상현씨의 친구들이니만치 다 좋은 사람일테구 또 남녀가 그렇게 문란히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두 무슨 성적문제에 관해서만 그러는 것들이 아닐 테니까 그저 꼭 참아가며 두고 보란 말이야.”

하고 말하는 효순의 안경 속 눈은 영리하고 총명하게 보였다.³²⁾

진보적 유학생들의 방종하다고 할만한 사생활을 ‘상현씨의 친구들이니 만치 다 좋은 사람들 즉 운동가’들이 하는 일이니 ‘문란히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두 무슨 성적문제에 관해서만 그러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은 효순의 ‘주의’에 대하여 거의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주의에 콜론타이 사상도 포함되어 있을 것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콜론타이 연애유희론의 성의식 수용을 대담하게 보여준 작가는 이 성의식과 함께 역시 연애유희론의 실천이라 할 수 있는 ‘주의자연애’ 모티프를 중심으로 소설을 전개한다.

주인공 효순은 자신의 일본유학 비를 대준 최진과 약혼을 하기 전 조건

31) 박화성, 『북국의 여명』, 위의 책, pp.361~362.

32) 박화성, 『북국의 여명』, 위의 책, p.363.

을 건다. 사랑보다 주의사상이 중요하니 주의사상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약혼은 무효로 하자는 것이다. 철저한 '주의자 연애'다. 주인공 효순이 ××동경지회 최고간부³³⁾가 되자 공립학교 교유인 최진은 자신의 직장유지에 문제가 있다며 운동에 나서지 말라는 편지를 보내오고 이는 곧 약혼 때의 다짐을 어기는 것이라 효순은 최진에게 파혼을 통고한다. 주의 사상이 먼저이고 사랑은 그 다음이라는 '주의자 연애'식 다짐은 결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효순은 웅변가요, 주의사상에 해박한 실력을 갖춘 김준호와 결혼하는데³⁴⁾ 검거선봉에 쫓겨 귀국한 후 다시 목포에서 빼라사건에 연루돼 남편이 투옥되자 정성껏 옥바라지를 하나 남편이 전향을 하고 기출옥을 해 나오자 비겁자 라며 집을 나가 홀로 북국으로 떠난다. 이는 바로 '주의자연애'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경훈은 『오빠의 탄생』에서 오빠—누이 구조는 부모 버리기이며 동지 관계로서 근대의 시간성이 새롭게 발생하는 지점이자 시대정신이라고 한 바 있는데³⁵⁾ 『북국의 여명』은 이 '오빠—누이'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효순의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서울로 평양으로 유학을 보낼 만큼 개명하였지만 첩을 얻어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등을 돌려 결국 가족들의 배척을 받고 끝내 몰락한다. 이로 인해 효순은 아버지를 '버리고' 오빠—누이 동지 관계구조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누이'는 오빠의 일본유학을 위해 교사생활을 하면서 학비를 댔으며, 이 오빠는 이 누이를 무척 아끼고 자랑스러워한 나머지 친구들과 누이가 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아버지의 몰락은 효순에게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33) ××동경지부 최고 간부란 근우회 동경지부위원장을 말한다. 실제로 박화성은 1928년 1월 21일 창립대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서정자, 『한국근대여성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9, p.69.

34) 소설만이 아니라 박화성의 결혼반지에는 Be faithful to L.I(사랑과 이름에 충실하자)라고 새겨져있는 등 실제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서정자 편, 『박화성문학전집』 제2권, 『북국의 여명』 화보.

35) 이경훈, 오빠의 탄생—한국근대문학의 풍속사, 문학과지성사, 2003, p.54.

해방을 의미하였고 부재 하는 아버지의 자리에 오빠가 대신 들어서지만 이때 오빠는 아버지에 의해 가부장적 질서가 수행될 때보다 수평적인 입장에서 부드러운 형식으로 아버지역할을 수행한다.³⁶⁾

『북국의 여명』은 주인공 효순이 노동자로 입신하지는 않지만 투사로 성장하는 과정과 단계를 우리 소설사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 그 점만으로도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소설이다. 주의 사상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효순은 일요일마다 높은 수준의 연구회에서 사상공부를 하는 한편 토요일 오후엔 조선여자들끼리만 모여서 독서회를 열고 ××투쟁의 방법과 정책들을 논의하는 등 이론과 실천 양쪽 모두에서 일류 투사가 되기 위하여 전심을 다한다.³⁷⁾ 그리하여 각 단체의 투사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들의 주최인 여러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 그곳에서 매번 정열적이고 날카로운 언론에 감동을 받아 “나도 일해 보겠다”는 새로운 욕망을 갖게 되던 중 비로소 실제운동에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선배인 동지들의 지도를 받아 ××동경지회를 조직하고 최고간부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북국의 여명』은 콜론타이의 연애유희론의 실천을 보여주는 ‘주의자연애’ 모티프 소설이며 오빠—누이의 구조로 된 삶에서 가부장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모습과 아울러 ‘일’을 위해 남편과 자식까지도 떨쳐버리는 대담한 여성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이다. 임현영교수는 『북국의 여명』이 “사회 민주적 민족해방 투쟁의식 노선에 입각하여 그 외의 다른 모든 노선에 대하여 가치없는 비판을 가하면서 여주인공이 이념적으로 일관된 투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근대 소설사에 흔하지 않은 예에 속한다”³⁸⁾고

36) M Hirsch, *The Mother/daughter plot: narrative, psychoanalysis, feminism*, Indiana, 1989, 제2장 참조, 김복순, 「『경희』에 나타난 신여성기획과 타자성」, 『인문과학논총』 23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6.에서 재인.

37) 이 독서회의 도서목록에 콜론타이의 저작도 들어 있었을 것이다.

38) 임현영, 「한 지식인의 사상적 초상—박화성의 『북국의 여명』에 나타난 이념상—」,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주최, 박화성선생 탄생백주년기념세미나 주제 발표논문, 2004.6.3.

하였다. 오빠와 남편은 전향하지만 효순은 전향하지 않는다. 아이들마저 늙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붙잡는 남편을 떨치고 용감하게 복국을 향하여 떠난다. 어떻게 이러한 '누이' 효순이 탄생하였을까? 또는 탄생이 가능하다고 작가는 생각하였을까? 콜론타이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Ⅲ. 맺음말

우리는 콜론타리즘의 이입이 우리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작업을 위하여 글을 시작하였으나 영향관계의 단서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글을 맺어야 하게 되었다. 콜론타이의 이입과 그 성격 규명이 전제되어야 하는 관계상 문학에 미친 영향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한 탓이다. 콜론타리즘은 당시 신문이나 잡지가 입을 모아 비판했던 성해방의 연애유희론적 성 의식만이 아니라 여성노동자 주인공이라는 신여성기획을 제시하고 있어 작가들이 신여성 상 내지 여성인물기획에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고 '지식인 여성노동자 주인공'의 등장과 '주의자 연애'를 중심으로 그 영향관계의 유무를 증명해 보는데 역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콜론타리즘의 영향관계에서 당시 신문 잡지에 소개된 수준만으로 비교에 나설 수 없을 뿐 아니라 콜론타이의 신 여성론이나 신도덕론 등 여러 저작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 문학에서 위의 두 가지 양상이 드러난 것을 밝혀낸 것은 수확이나 콜론타이 저작의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것은 논의를 전개하는데 아쉬운 점이었다고 하겠다.

콜론타리즘은 그 전위적이고 혁명적인 신도덕론으로 하여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여성해방사상으로 엘렌케이 사상과 함께 우리 나라 신여성기획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상이다. 당시의 지도적 여성들의 결혼과 이혼을 보더라도 사랑이 남녀결합의 기준이 됨으로써 전통결혼의 해체를 부르

짓은 엘렌케이 사상과 콜론타리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문학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는데 콜론타리즘의 경우 그것이 관념적 인물로 그려지거나 투사적 인물로 그려지나 콜론타이의 말한 바 제5의 히로인이자 분명 새로운 유형으로서 신여성이 '지식인 여성노동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점과 '주의자 연애' 모티프로 등장하고 있음이 주목되었다. 본고는 이기영의 장편 『고향』과 박화성의 장편 『북국의 여명』을 중심으로 위의 '지식인 여성노동자' 등장과 '주의자 연애' 모티프가 어떻게 콜론타이의 영향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이기영과 박화성의 두 작품이 콜론타리즘의 영향을 논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을 논증해 보았으며 따라서 콜론타이의 신여성론과 연애유희론이 우리 문학에 미친 영향이 다대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의 보다 광범위한 고찰은 앞으로 남은 문제이며 동시에 이 두 작품의 예를 보더라도 이 신여성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신여성은 아니었다는 점, 즉 근대 서구사상의 이입에 의해 형성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남자의 시선이요, 남성적 세계의 인물이라는 점 역시 심도 있는 분석이 요청되는 부분으로 보였다. 즉 여성노동자로 성장하는 갑숙이나 투사적 인물의 성장을 보여주는 박화성의 『북국의 여명』의 효순은 역시 콜론타이의 사상을 밑그림으로 하여 자신의 세계를 그려간 이중적 타자의 존재인 것이다. 김복순교수가 파농의 용어를 패러디한 '누런 얼굴 하얀 가면'의 식민성³⁹⁾이 지배하는 식민지의 피지배자로서 이들의 신여성기획은 차분히 점검을 해보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본고는 콜론타이의 신여성기획이 우리 신여성기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발견으로써 논의를 맺어야만 하였다. 콜론타이의 신여성론을 비롯하여 콜론타이의 사상의 이입과 그 영향은 앞으로 우리 근대 신여성 기획과 관련하여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9) 김복순, 앞의 논문.

□ 참고문헌

1. 논문

- 김미현, 「박화성 소설 속의 'Shadow Feminism」, 탄생백주년 기념 문학제, 주제발표 논문, 2004.4.29.
- 김복순, 「『경희』에 나타난 신여성기획과 타자성」, 『인문과학논총』 23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01.
- 서정자, 「일제강점기 한국여류소설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7.
- 서정자, 「박화성의 역사의식과 그 소설화—해방후 소설에 나타난 상징성과 이중구조」,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주최 박화성선생 탄생백주년 기념세미나 주제발표논문, 2004.6.3.
- 서형실, 「정열의 여성운동가 허정숙」, 『여성과사회』, 3호, 여성연구회, 1992.
- 송연옥,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불행한 결렬—1930년대 한국 '신여성」, 『페미니즘 연구』 1호, 한국여성연구소, 2001.
- 이기영, 「변절자의 안해」, 신계단, 1933.5.
- 이기영, 「혁명가의 안해와 이광수」, 신계단, 1933.4.
- 이선옥, 「이기영소설의 여성 의식 연구」, 숙명여대대학원 박사논문, 1994.
- 임현영, 「한 지식인의 사상적초상—박화성의 『북국의 여명』에 나타난 이념상」,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주최 박화성선생 탄생백주년 기념세미나 주제발표 논문, 2004.6.3.

2. 단행본

- 나병철, 『근대성과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1995.
- 문옥표의, 『신여성』, 청년사, 2003.
- 서정자, 『한국근대여성소설연구』, 1999.
- 서정자 편, 박화성, 『북국의 여명』, 푸른사상사, 2003.
- 서정자 편, 『박화성문학전집』, 푸른사상사, 2004.
- 송지현, 『다시쓰는 여성과 문학』, 평민사, 1995.
- 아우구스트 베벨, 이순예 옮김, 『여성론』, 까치, 1987.
- 역사문제연구소,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비판』, 1996.
- 이상경, 『이기영 시대와 문학』, 풀빛, 1994.

- 이경훈, 『오빠의 탄생』, 문학과 지성사, 2003.
- 이광수, 『혁명가의 아내』, 우신사.
- 이기영, 『고향』, 동아출판사, 1995.
-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종로서적, 1986.
- 정현백, 『민족과 페미니즘』, 당대, 2003.
- 펠스키, 리타, 김영찬 심진경 옮김,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 최혜실, 『신여성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 나무, 2000.
- 최화성, 『조선여성독본』, 백우사, 1949.
- 콜론타이 A. 지음, 김제헌 옮김, 『붉은사랑』, 도서출판 공동체, 1988.
- 콜론타이 A. 신운선 역, 『연애와 신도덕』, 1947.
- 콜론타이 A., 林房雄역, 『연애와 신도덕』, 세계사, 1928.
- 콜론타이, 알렉산드라, 석미주 옮김, 『홀로된 사랑 이별(A Great Love)』, 푸른산, 1991.
- 크로포트킨 지음, 성정심 옮김, 『청년에게 호소함』, 도서출판 신명, 1993.
- 판스워드 B. 저, 신만우 역,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풀빛, 1986.
- 한실야, 『황혼』, 동아출판사, 1995.

3. 기타 신문잡지의 기사는 각주로 대신함.

Abstract

The import and introduction of the Kollontaiism and new women project

— focusing on the emergence of 'Working Female Intellectuals' and 'Socialist love' —

Seo, Jung-Ja

Kollontaiism, along with the theory of Ellen Key,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thoughts to women in the way that it created a new identity of liberated women. The works and influences of Ellen Key often have been subjects to be studied in many fields in academia such as social science and literature while the ones of Kollontai never received the same degree of attention. Kollontaiism which is recently imported and introduced in Korea supports the idea of Free Love. The media, especially newspapers and magazines, magnified only one aspect of Free Love. From what the media conceived Free Love states merely 'Love making is a private affair. Without considering charms women should feel free to be sexually engaged with men,' with the 'Red Love.' This incomplete presentation ruthlessly hid her idea of 'The New Women' which also affected Korean literature as significantly as the Free Love. However Korean writers who came in touch with the socialism and Kollontaiism during their stays in Japan as students or workers, being influenced by Kollontai's philosophy, created many intelligent female proletarian characters in their novels under proletarian literature. Also, deeply affected by Free Love they promoted socialist love to major motive in their works. I investigated the roles of female intellectual proletarians and 'socialist love' in Korean literature. From what I found via researching on two novels, 'Homeland' by Kiyoung Lee and 'Dawn of the North Country' by Hwasung Park was that both authors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ideals of Kollontai, 'The New Women' and 'Free Love.' Finally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her works have laid considerable effects on Korean literature as far as women's roles are concerned. A thorough analysis of Kollontai's works is our job ahead to do and the 'new women' from above novels are not the same as the 'new women' relating to old Korean literature. They are imported from western culture. I felt that more in depth analysis should be done about the novels focusing on the fact that female characters are created from men's

key words : Kollontai, New Women, Free Love, Socialist love, Working Female Intellectuals, New women project

■ 위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 심사 완료 후, 11월 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